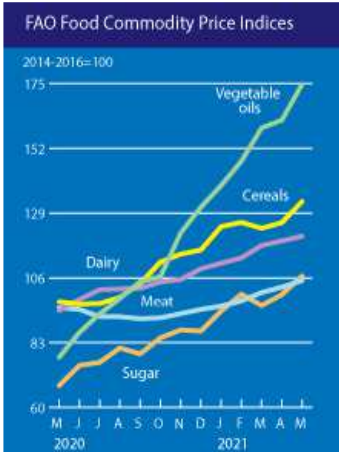




[시장동향] FAO 유제품 지수 1.5% 오르며 1년 연속 상승세

- 식품가격지수도 4.8% 오르며 2010년 10월 이후 최고치 기록



지난 5월 FAO의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1.7포인트 오른 120.8포인트로 1.5% 오르며 1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 전년동기대비 28%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 2013년 1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제 탈지분유 가격은 유럽의 현물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수입 수요가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분유도 뉴질랜드의 공급량에 비해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이 상승했다.

또한, 치즈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공급물량이 감소해 가격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1개월간 상승세를 이어온 버터 가격은 뉴질랜드의 수출 물량 증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FAO 식품가격지수는 전월대비 4.8% 상승한 127.1포인트로 1년 연속 상승한데 이어 지난 2010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설탕, 곡물 및 유지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가격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fao.org, 6월 3일자 >

[소비동향] 中, 코로나19 이후 유제품 소비 크게 늘어

- 일평균 유제품 섭취량 237ml에서 260ml까지 증가...주식으로 자리매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에서도 유제품이 건강한 식단을 책임지는 주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유제품협회(CDIA)와 프리슬란드 캄피나 중국지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며 소비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4,200명의 응답자 중 30.7%가 코로나19 이후 유제품 섭취를 늘렸고, 그 중 11.1%는 액상유, 분유 및 치즈 외에도 유제품 스낵 및 발효유 등 다양한 유제품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일평균 유제품 섭취량이 237ml이었던 것에 반해 금년에는 260ml까지 늘어났고, 소비 형태도 다양해지며 아침식사 대용과 RTD(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프리슬란드 캄피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제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유제품을 통한 더 나은 영양소 공급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 연구개발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 출처 : epaper.chinadaily.com.cn, 6월 4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